

2022년 총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2022. 3. 28.

순 서

- <자료 1> 발족 선언문
- <자료 2> 내만복을 소개합니다.
- <안건 1> 2021년 활동 평가안
- <안건 2> 2021년 결산안
- <안건 3> 2022년 활동 계획안
- <안건 4> 2022년 예산안
- <안건 5> 기타

〈자료 1〉

발족 선언문

복지국가를 내 손으로 만들자!

- 이제 복지국가 '당위성' 넘어 건설 '방안' 논의해야 -

의회 권력과 정부권력이 동시에 교체되는 역사적인 2012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는 보편복지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지를 논의하고 국민의 공감을 모아가는 일이다. 우리 국민은 그간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정글 속에서 지칠대로 지쳤다. 그리고 이제 무상급식운동의 승리를 계기로 비로소 복지에 눈을 떴다. 그것은 이른바 복지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깨달음이다.

누구도 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학교에서 배를 굶아서는 안 된다. 몸이 아프면 마음 놓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한다. 어린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데가 없어서 일터에서 발을 동동 굴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유랑민처럼 주거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단란한 가정을 지키고 싶다. 늙거나 장애가 생겼을 때는 생활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우리는 보육, 교육, 장애, 의료, 주거, 노후 등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불안에서 벗어나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지켜주는 나라가 바로 복지국가라고 믿는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복지후진국, 자살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라는 기막힌 현상까지 출현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껏 복지를 시혜적 차원으로 여기며 복지 확충에 소극적이다. 정작 그런 이명박 정부는 지난 4년간 증명되지도 않은 성장 촉진을 명분으로 재벌과 부자에게 무려 83조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우리 산천을 파헤치는 4대강 토목공사로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강바닥에 쏟아부었다.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2012년 선거를 맞아 다양한 복지정책을 호언장담한다. 그러나 그들의 복지공약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들은 재정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지, 복지재정을 어떻

게 확보할 지에 관해 신뢰할만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줄푸세 공약에 대한 폐기와 반성도 없이 복지 공약을 쏟아 놓고 있다.

우리는 복지국가를 앞세운 후보가 정작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여도 집권 이후 복지 프로그램을 집행하려면 득표수의 우위를 넘어 대중적 복지운동이라는 밑거름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럴 때만 복지국가 공약에 숨결이 부여되고, 재벌과 보수적 경제관료, 완고한 정치세력 등 복지국가에 반대하는 세력의 저항도 넘어설 수 있다.

복지국가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지난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을 억눌러왔던 수많은 장벽들을 넘어서야 한다. 첫째, 복지재정을 확충해야 하고 낭비되는 재정지출을 대폭 절감하며,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는 연대재정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보육·의료·요양·주거 등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공공화해야 한다. 셋째, 경제민주화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과제를 그저 정치인의 손에만 맡길 정도로 우리 국민은 순진하지 않다. 우리의 맞잡은 손이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어 낼 때 정치인들도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안다.

우리는 대한민국 민심이 지닌 역동성과 지혜를 믿는다. 대한민국이 서구의 어느 나라와도 똑같은 길을 밟아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았듯이 우리가 건설해가는 복지국가도 우리의 길이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거리의 촛불에서, 무상급식 운동에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에서 확인한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찬 에너지를 믿으며, 이들이 복지국가 건설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바치고자 한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한 표를 행사하는 투표자의 지위를 넘어 복지국가의 관람자에서 건설자로 나선 것이다. 2013년부터 당장 우리 스스로와 자녀들이 돈 없다고 무시당하지 않고, 아파도 병원비 걱정에 끄끙대는 일 없고, 주거와 일자리와 노후 불안에 전전긍긍하지 않으며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할 말 하고 할 일 하며 살아가는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자!

우리는 내가 낸 세금을 정부가 정의롭게 사용하는지 조세, 의료, 토목 지출을 철저히 검증하고, 복지 체험 앱을 통해 대중들의 복지국가 체험기회를 널리 만들어 나가며, 복지국가 재정 확보를 위한 능력별 증세 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이에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학부모, 사회복지사, 노동자, 농민, 빈민, 소상공인, 보건의료인, 변호사, 의사, 연구자 등 대한민국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시민과 노동자들이 작지만 소중한 희망을 모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를 발족한다.

2012. 2. 29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발기인 일동

강명득(민변회원), 강신만(전교조), 고승관(협동조합운동), 고영호(민주통합당울산시당), 고윤정(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구슬기(사회복지사), 권순미(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권혁정(출판인), 기현주(사회복지사), 김경아(한미FTA폐기 국민행동), 김대성(4050유니온 공동대표), 김대휴(유티엔씨), 김만곤(돌젠 이사), 김명진(출판인), 김미영(회사원), 김미희(코리아어론연구소), 김민호(예수만나기 인터넷 방송국/목사), 김병권(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김부환(영남신문 논설위원실장), 김성년(대구 수성구의원), 김성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변호사), 김성호(FNI Advisors), 김성훈(School of Economics and Finance, University of St Andrews), 김성희(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과정), 김세림(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김소연(자영농), 김수미(강원대 대학원생), 김승연(사회복지사), 김연명(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연호(Heidrick & Struggles Korea 전무), 김영림(한식구생활공동체), 김영수(상계뉴타운 News 발행인), 김영순(서울과학기술대 정치학 교수), 김영중(자영업), 김옥규(리모미쳐 사무국장), 김용익(서울대학교의과대학의료관리학교실), 김인춘(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김정모(대구일보 논설위원), 김종건(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종명(의사, 건강보험하나로 운영위원), 김종희(시민), 김진원(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태균(이화여대 행정학), 김태용(국민연금공단), 김학동(귀농인), 김해명(엠에스건설), 나정석(민주통합당), 나진구(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남찬섭(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 남춘호(전북대학교), 노경훈(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간사), 단병호(평등사회노동교육원 이사장), 류동민(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문장순(정치학 박사)

박경호(경운대학교), 박내선(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박도영(영산대 교수), 박미리(시민), 박유순(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 박유제(거제신문 편집국장), 박장형(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원장), 박주동(공공운수노조 한국관세무역개발원지부장), 박주민(법무법인 한결한울/민변회원), 박태하(전국건설기업노련), 박형호(코리아어론연구소 소장), 배기남(민주노총 서울본부 부본부장), 배문정(우석대학교), 상운승려(안동 용수사 주지), 서상희(시민), 성충제(서울홍일초등학교),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교수), 신동명(귀농 농부), 신동하(전교조 성남지회), 신희준(사회복지학 대학원생), 심보란(시민),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팀장), 양봉석(환자복지센터 소장), 양재진(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엄민영(출판인),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오재영(시민), 오현애(금천 교육공동체), 오혜원(한생명 근무), 우명숙(중앙대학교 중앙사회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원종현(금융법제 전문가), 유동호(보건전문가), 유비(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윤석구(시민), 윤성용(시민), 윤종훈(회계사), 윤춘호(공공운수노조 편집국장),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 교수), 은상준(예방의학 박사), 이명목(도서출판 인간과복지), 이견범(작가/출판기획자), 이경희(함께걸음 의료생협), 이계승(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기정(북공고), 이동기(영남대 객원교수), 이동은(보건복지부), 이득규(자영농), 이명재(덕천교회 담임목사), 이민선(하나아이앤에스),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상호(민주노총 정책국장), 이상호(도봉민생상담소 소장), 이선태(코스터디 기획이사), 이세미(성균관대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세희(NGO 대학원생), 이용화(회사원), 이종래(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이종석(회계사), 이주영(사회복지사), 이주하(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이진석(서울대 의대 교수), 이창곤(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이호근(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성(건강보험하나로 운영위원), 임영일(한국노동운동연구소 소장), 임정현(시민), 임준(노동건강연대), 임철(시민)

장은주(영산대 교수),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정경모(동아시아미래재단), 정세은(충남대 경제학 교수), 정수현(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정연탁(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정원호(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창수(좋은예산센터 부소장), 최창우(반값등록금실현을위한학부모모임 총무), 정태석(전북대학교 사범대 일반사회교육과), 정태인(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조경석(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 조봉구(금융소비자협회 회장), 조성국(광주민예총), 조성희(아마존카 대표), 조수진(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순자(사회복지사), 조승수(통합진보당국회의원), 조연호(철도노동조합), 조재형(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주희준(함께걸음 의료생협), 최국태(한미FTA폐기 국민행동), 최재부(시민), 최찬식(사회학박사), 최창우(노원구 주민),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 한경수(법무법인 위민/민변회원), 한인임(녹색병원연구소 연구위원), 한정수(돌북 대표), 함영덕(인텔피아 학원장), 허상수(평화생명복지연대(평생연대) 대표), 허헌중(우리밀 대표), 현광훈(공공운수노조 미조직비정규실장), 홍경준(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홍우철(4050유니온 공동대표),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가나다 순 164명]

〈자료 2〉

내만복을 소개합니다.

1. 의제의 확장: 복지재정에서 전체 복지국가 의제로

내만복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형 복지국가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시민들이 발족한 복지단체이다. 당시 보편복지 담론이 확장되고 정당마다 복지국가를 이야기했으나 정작 시민 참여의 논의는 부족했다. 이에 내만복은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위한 ‘아래로부터’ 재정주권운동을 제기하면서 의료, 연금, 주거, 사회서비스 등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복지국가를 시민 스스로 토론하며 만들자고 제안했다.

2012년 2월 29일 내만복 발기인 164명은 국회도서관에서 발족대회를 열고 ‘복지국가 재정 확보를 위한 시민주도 복지증세 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내만복은 재정확충 운동의 핵심 의제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하고 복지 체험 애플리케이션도 발표했다.

내만복은 2012년 발족과 함께 총선·대선 복지공약 검증, 복지증세를 위한 사회복지세 도입, 복지국가 시민촛불 등을 벌였다. 2013년 이후 박근혜정부에서는 복지공약 후퇴 대응, 공약사기 대통령 고발, 정치권의 세금폭탄론 대응, 기초연금 중심의 연금개혁 제안, 건보 부과체계 개혁, 기초생활보장제 개혁 등 다양한 의제에서 활동했고,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의 연장에서 어린이병원 비 국가보장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에는 대선을 맞아 공약 검증 활동에 나섰고, 내만복학교를 열었으며, 문재인정부에서는 ‘포용적 복지국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지방선거를 계기로 성남시에서 어린이병원 백만원 상한제를 시행하는 토대를 마련했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되도록 했으며,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맞아 연금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정리하면, 지난 8년 동안 내만복은 복지재정에서 출발해 복지국가 전체 의제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며 굳건히 걸어왔다.

2. 내만복 활동체계: 의견에서 연대까지

내만복은 핵심 복지 의제에서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벌여 왔다. 내만복 연구모임, 기획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의제별 입장을 정리하고, 논평, 기자회견, 이슈페이퍼, 언론 기고 등을 통해 내만복의 입장을 알려 왔다. 특히 매주 프레시안에 올라가는 내만복칼럼은 복지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고 제안하는 창구로 자리잡았다.

내만복의 활동은 만복라디오, 만복TV, 단행본 등 다양한 홍보 방식을 통해 공론화하고 2017년부터는 내만복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매주 발행되는 내만복 뉴스레터를 통해 회원과 지지자들에게 내만복 활동을 알리고, 회원들이 참여하는 나들이 모임도 갖고 있다. 2019년부터는 회원 중심의 책모임도 시작했고, 2020년에는 매월 ‘내만복포럼’을 시작했다. 특히 내만복 블로그는 하루 수백명 이상, 어떤 날은 1,2천명이 방문하는 중요한 창구로 자리 잡았다.

내만복은 여러 복지단체들과 연대 활동을 중시한다. 내만복은 세금, 기초연금, 어린이병원비 등 핵심 의제별로 연대기구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 과정에서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노년유니온, 어린이단체 등과 길민한 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 단체들과 2012년부터 매달 진행되는 복지국가촛불은 복지시민운동의 상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의제연구	주장	공론화	교육	소통	연대																			
<table border="1"> <tr><td>기획모임</td></tr> <tr><td>연구모임</td></tr> </table>	기획모임	연구모임	<table border="1"> <tr><td>논평</td></tr> <tr><td>기자회견</td></tr> <tr><td>내만복칼럼</td></tr> <tr><td>이슈페이퍼</td></tr> <tr><td>언론기고</td></tr> </table>	논평	기자회견	내만복칼럼	이슈페이퍼	언론기고	<table border="1"> <tr><td>만복TV</td></tr> <tr><td>만복라디오</td></tr> <tr><td>단행본</td></tr> </table>	만복TV	만복라디오	단행본	<table border="1"> <tr><td>내만복학교</td></tr> <tr><td>영상 교육</td></tr> </table>	내만복학교	영상 교육	<table border="1"> <tr><td>뉴스레터</td></tr> <tr><td>회원모임</td></tr> <tr><td>블로그</td></tr> <tr><td>책모임</td></tr> <tr><td>내만복포럼</td></tr> </table>	뉴스레터	회원모임	블로그	책모임	내만복포럼	<table border="1"> <tr><td>의제네트워크</td></tr> <tr><td>복지촛불</td></tr> </table>	의제네트워크	복지촛불
기획모임																								
연구모임																								
논평																								
기자회견																								
내만복칼럼																								
이슈페이퍼																								
언론기고																								
만복TV																								
만복라디오																								
단행본																								
내만복학교																								
영상 교육																								
뉴스레터																								
회원모임																								
블로그																								
책모임																								
내만복포럼																								
의제네트워크																								
복지촛불																								

3. 내만복 특징: ‘아래로부터’ ‘입장’을 지닌 복지시민단체

내만복은 기존의 진영 논리에 안주하지 않고 실사구시의 문제의식에서 시민주체, 사회연대 가치에 부합하도록 자신의 입장을 다듬고 공론화해 왔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내만복은 복지 의제별로 나름의 ‘입장’을 지닌 복지시민단체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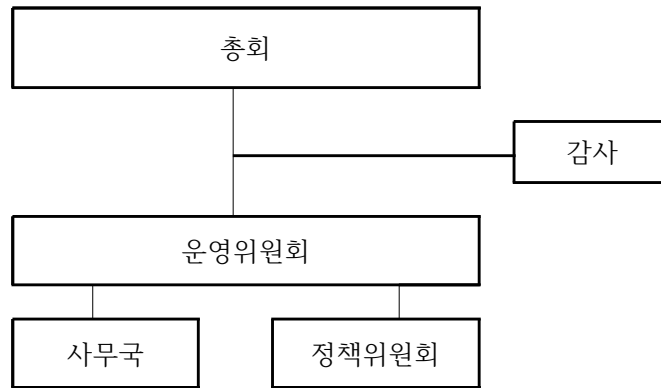
주요한 의제를 보면, 문재인케어를 넘어서 어린이병원비 백만원 상한제, ‘소득 중심의 ‘건부 부과체계 개혁’,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의 한계를 지적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연말정산의 ‘세금폭탄론’에 맞선 ‘복지증세,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세 도입’, ‘국민연금 인상론’을 넘어서는 ‘기초연금중심 개혁’, 등이다.

이러한 활동에 발맞춰 지난 대선에서 상당수 후보들이 노후소득보장에서 기초연금 인상을 내걸었고, 보건의료에서는 문재인케어가 추진되고 있으며 성남시에서는 ‘어린이병원비 백만원 상한제’가 2019년 7월에 시행되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2년째 부가급여 10만원안이 합의 단계까지 이르렀다. 내만복은 향후 의제를 더욱 확장하여 전월세 상한제/계속거주권을 지닌 주거복지, 사회서비스 인프라의 공공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등에서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 재난을 맞아 기존 복지체제의 혁신도 중요한 내만복 과제로 자리잡았다. 소득기반 전국민고용보험, 실시간소득파악, 혁신복지체제 구축 등 전통적 복지국가의 한계를 넘어서는 비전을 마련하여 21세기형 복지국가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4. 운영위원회

내만복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총회이다. 매년 2월 말에 개최된다(발족일 2월 29일). 내만복을 운영하는 핵심 기구는 운영위원회이다. 운영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공동대표 2인, 운영위원장, 정책위원장이 활동하고 있다.



<표 1> 운영위원회 (14명)

직책	이름	소개
공동대표	김종명	성남시의료원 의사
공동대표	기현주	전)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위원장	홍순탁	회계사
정책위원장	오건호	정책활동가
운영위원	최은희	약사
운영위원	강지현	사무국장 (상근)
운영위원	김연아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
운영위원	김대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운영위원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조교수
운영위원	양혜정	사회복지사
운영위원	유동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운영위원	오종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대외사업국장

5. 회원 현황

내만복은 2012년 발족해 이제 9년이 된 복지시민단체이다. 2017년에 보건복지부 비영리단체로 등록했으며, 2018년에는 기획재정부의 기부금 소득공제단체로 등록되었다.

내만복에는 두 가지 유형의 회원이 존재한다. 2022년 3월 기준 CMS 가입 회원은 628명이다 (정회원은 345명, 후원회원 283명).

- 정회원: 회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며 권리와 의무를 행사.
- 후원회원: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않으면서 일정액의 후원금을 납부.

<표 2> 연도별 가입 회원수(명)

연도	신규	누적
2013	74	74
2014	46	120
2015	37	157
2016	58	215
2017	72	287
2018	28(해지 11명)	304
2019	27 (해지 18, 회원정리 35)	278
2020	52 (해지 16, 회원정리 2)	312 (순증 34)
2021	2월 기준 397 (해지 3)	706 (순증 394)
	22년 3월 기준 28 (해지 88, 회원정리 18)	628 (순감 78)

〈안건 1〉

내만복 활동 평가안

1. 2021년 활동 현황

〈표 3〉 활동 요약

사업구분	세부사업	편(회)수	
		2020년	2021년
논평성명		42	33
내만복칼럼		46	48
연구활동(연구보고서/이슈페이퍼)		1	1 (혁신복지체제 연구팀)
내만복포럼		9	7
독서모임		0	16
온라인 사업	만복TV	27	0
	만복뉴스	48	48
	블로그	187,450명 (누적 976,251명)	196,658명 (누적 1,172,909명)
주요 연대활동	집걱정연대	-	35
	병원비연대	-	16
	빈곤노인연대	-	5
	복지국가춧불	-	12
참여 연대기구		6	8
회원수		312명	628명

〈논평 성명〉 _ 33편

- 2021.12.30 [성명] 심케어, 〈건강보험 하나로 백만원 상한제〉 환영한다
- 2021.12.24 [성명] 보유세, 양도세, 거래세 모두 깎아주는 집부자 특혜 종합선물 규탄한다!
- 2021.12.03 [성명] 생명과 직결된 신약 ‘김리아’를 신속히 급여화하라!
- 2021.12.01 [성명] 사이 좋게 주택 불로소득 비과세 확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규탄한다!
- 2021.11.15 [성명] 윤석열의 종합부동산세 후퇴선언 강력히 규탄한다.
- 2021.11.10 [성명] 강도영의 병원비와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다
- 2021.10.06 [논평] 서민주거안정 외면한 대장동 임대주택 축소 규탄한다.
- 2021.10.01 [논평] 너무도 오래 걸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1.08.31 [성명] 집부자 위한 종부세 개악, 서민은 분노한다!
- 2021.08.25 [논평]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으로 늘리는 종합비전 수립하라
- 2021.08.19 [논평] 집부자 위한 종부세 개악 야합, 시민은 거부한다.
- 2021.08.13 [논평] 문재인케어, 절반의 성공 백만원 상한제로 나아가야
- 2021.08.11 [논평] 경제정의 외면한 이재용 가석방 결정
- 2021.07.30 [성명]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5.02% 결정에 부처
- 2021.07.30 [성명] 임대차법 1년, 계약갱신권은 더 강화돼야 한다
- 2021.07.29 [성명]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한 대폭 인상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2021.07.27 [논평]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확대되어야 한다
- 2021.06.21 [성명] 더불어민주당의 부자감세 당론 결정 규탄한다
- 2021.06.17 [성명] 부동산 부자감세 추진하는 민주당에 경고한다
- 2021.06.02 [출범선언문]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하여!
- 2021.05.26 [논평] 과거 회귀,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 2021.05.25 [논평]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이제 선별급여까지 보장하자!
- 2021.05.20 [성명]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촉구 시민사회 공동선언
- 2021.05.07 [성명] 어버이날, 빈곤노인에 대한 불효를 멈추자
- 2021.05.04 [성명]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시행하라!
- 2021.04.19 [논평] 정부·여당은 보유세 후퇴하지 마라!
- 2021.04.08 [성명]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규제 완화가 아닌, 서민 주거 안정에 전념하라
- 2021.03.31 [논평]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 환영한다
- 2021.03.17 [논평]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사업 억압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 2021.01.22 [논평]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합의 환영한다
- 2021.01.19 [논평] 사법정의 구현한 이재용 실형 판결
- 2021.01.12 [논평] 주거급여 대상 두 배로 늘리자
- 2021.01.04 [논평] 인권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견 지지한다.

〈내만복 칼럼〉 _ 48편

- 2021.12.24 [내만복 칼럼] 2천만원 '병원비 폭탄'이 '간병 살인' 불렀다
- 2021.12.20 [내만복 칼럼] 장애인 노동정책, 30년 전 '직업재활' 이념 그대로?
- 2021.12.10 [내만복 칼럼] 장애인·고령자·노숙인·탈가정 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이 필요하다
- 2021.12.03 [내만복 칼럼] '사람'이 마을이다
- 2021.11.26 [내만복 칼럼] 미얀마 군부 쿠데타 300일, 변하지 않는 한국 정부와 기업
- 2021.11.19 [내만복 칼럼] '강도영 비극', 국가는 '간병 살인' 책임 없나
- 2021.11.12 [내만복 칼럼] 약이 있는데도...치료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은찬이
- 2021.11.05 [내만복 칼럼] '방 말고 집'을 요구합니다!
- 2021.10.21 [내만복 칼럼] 가난한 이들의 존엄과 복지국가
- 2021.10.14 [내만복 칼럼] 지금도 군에는 '변희수들'이 있다
- 2021.10.08 [내만복 칼럼] "지난 1년간 이 법을 기다리던 800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죽었다"
- 2021.09.30 [내만복 칼럼] 요즘 군대, <D.P.>와 정말 다를까
- 2021.09.24 [내만복 칼럼] "집주인도 받는 기초연금, 반지하 세입자가 못 받는 게 정상이야?"
- 2021.09.17 [내만복 칼럼] 2021년 한국의 시대정신은 '기후-불평등 위기'다
- 2021.09.02 [내만복 칼럼] 기본소득 있는 복지국가 vs. 소득기반 최저소득
- 2021.08.27 [내만복 칼럼] 공익법인 기부금 투명성 평가의 목적을 되짚어 볼 때
- 2021.08.20 [내만복 칼럼] 국민건강과 환자중심의 공공의료공급체제로 개혁하자
- 2021.08.13 [내만복 칼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한다면?
- 2021.08.06 [내만복 칼럼] '주거 사다리'라는 신화,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만들다
- 2021.07.29 [내만복 칼럼] 갱신마다 보험료 폭탄, 실손보험료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 2021.07.22 [내만복 칼럼] 문재인 케어가 절반의 성공에 그친 이유
- 2021.07.15 [내만복 칼럼] 강서구 일가족의 죽음에 부쳐
- 2021.07.12 [내만복 칼럼] 코로나 시대의 '잃어버린 세대', 청년
- 2021.07.01 [내만복 칼럼] 누구를 위한 종부세 후퇴인가
- 2021.06.25 [내만복 칼럼] 다문화사회를 만드는 일, '여기'에서 출발한다
- 2021.06.17 [내만복 칼럼] '이모님'도 노동자다!
- 2021.06.09 [내만복 칼럼] 미얀마 쿠데타 세력이 입은 군복, 한국 기업이 만든다
- 2021.06.04 [내만복 칼럼] P4G 정상회의 '그린워싱' 논란, 우리의 기후운동은 계속된다
- 2021.05.28 [내만복 칼럼] "'주민등록법'은 집 없는 노숙인에게는 최악의 법"
- 2021.05.21 [내만복 칼럼] "복지는 '한 곳 차이'에서 시작될 수 있다"
- 2021.05.16 [내만복 칼럼] 주거 안정을 위해 수십 년짜리 빚쟁이가 되길 자청해야 하는 사회
- 2021.05.06 [내만복 칼럼] '그날'이 아니라 '월경'입니다...이제 '월경권'을 이야기합시다
- 2021.04.29 [내만복 칼럼] 대한민국은 '노인빈곤'과 '고령근로'의 나라
- 2021.04.22 [내만복 칼럼] 미얀마의 총성,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2021.04.15 [내만복 칼럼] 세월호 참사 7년, 세월호 가족들은 어디에 있을까?
- 2021.04.12 [내만복 칼럼] 'LH 사태' 대책, 공직자 재산 등록만으로는 부족하다
- 2021.04.05 [내만복 칼럼] 자산형성·대출지원 공약하는 후보들, 과연...
- 2021.03.31 [내만복 칼럼] 국민연금은 충실한 집사가 되고 있는 걸까?
- 2021.03.24 [내만복 칼럼]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사업, 복지부에 막혔다
- 2021.03.11 [내만복 칼럼] 프레디 머큐리의 키스신과 변희수를 삭제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 2021.02.25 [내만복 칼럼] 장애인들이 '가짜정당'을 만든 이유를 아십니까?
- 2021.02.17 [내만복 칼럼] 한국,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가장 재정을 아껴 쓴 나라
- 2021.02.09 [내만복 칼럼] '5조 기부' 카카오 김범수에게 바라는 것은 따로 있다
- 2021.02.01 [내만복 칼럼] 정의연 사태를 통해 본 기부금 투명성 문제
- 2021.01.20 [내만복 칼럼] '코로나 취약층' 자영업자에게 언제까지 임시방책만... (3)
- 2021.01.13 [내만복 칼럼] '산재 공화국'의 '씻물'은 식지 않았다
- 2021.01.06 [내만복 칼럼] 일하는 어머니의 '시간'은 불평등하다
- 2021.01.04 [내만복 칼럼] 플랫폼은 혁신, 플랫폼 노동은 퇴행... 혁신의 역설을 말하다

<혁신복지체제 _ 6회>

<표> 혁신복지체제 구성(안)

	주제	필자
기본원리	보편주의 재인식	남재욱
	조세개혁	홍순탁
소득보장	노동시장 개혁	남재욱
	새로운 일자리 보장	기현주
	빈곤제로 소득보장	오건호
	연금개혁	오건호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혁신	김연아
	지역사회 통합돌봄	김연아
	보건의료 공공성	김종명
	부동산/주거 개혁	김기태
	생활금융	한영섭
	장애인복지	양혜정

〈내만복포럼 _ 7회〉

- 2021.09.02 [내만복 포럼] 청년정책의 진단과 발전방안
- 2021.07.22 [내만복 포럼] 〈혁신복지체제〉 전 국민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
- 2021.06.12 [내만복 포럼] 〈혁신복지체제〉 보편주의의 재검토
- 2021.04.20 [내만복 포럼] 시민 참여소득을 위하여
- 2021.03.31 [내만복 포럼] 소액 기본소득, 어떻게 볼 것인가?
- 2021.02.05 [내만복 포럼] 대규모 고용 충격 시대의 경제·복지 정책은?
- 2021.01.26 [내만복 포럼] 트럼프 퇴진은 트럼프 시대의 종언일까?

〈집걱정없는세상연대〉 _ 35회

- 2021.03.03. [연대활동] 〈집걱정없는 서울넷〉 출범 기자회견
- 2021.04.22. [연대활동] 〈거대 양당 부동산 정책 규탄대회〉, 국회 본청 앞
- 2021.05.11. [연대활동] 〈집걱정없는세상을 위한 연대〉 워크샵
- 2021.06.02. [연대활동]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출범식 (29개 단체), 동자동
- 2021.06.11. [연대활동] 〈부동산 부자감세 추진하는 민주당 규탄한다〉 국회 앞 기자회견
- 2021.06.17. [연대활동] 〈부동산 부자감세 추진하는 민주당에 경고한다〉 성명 발표
- 2021.06.19. [연대활동] 〈집부자들에 대한 백기 투항, 더불어민주당의 부자감세 당론 결정 규탄〉 성명 발표
- 2021.06.25. [연대활동] 〈부동산 부자감세, 시민은 거부한다〉 민주당사 앞 기자회견
- 2021.07.09. [연대활동] 〈민주당 대선후보들은 종부세 완화에 찬성하는가〉 성명 발표
- 2021.07.13. [연대활동]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긴급토론회〉
- 2021.07.16. [연대활동] 〈종부세법 개악 반대〉 릴레이 1인시위
- 2021.07.30. [연대활동] 〈임대차법 1년 계약갱신권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 성명 발표
- 2021.08.19. [연대활동] 〈집부자 위한 종부세 개악 야합 시민은 단호히 거부한다〉 성명 발표
- 2021.08.31. [연대활동] 〈집부자 위한 종부세 개악 서민은 분노한다〉 성명 발표
- 2021.09.07. [연대활동] 〈무주택자 공동행동 1차〉 광화문
- 2021.09.15. [연대활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①〉 ‘주거권과 토지공개념’
- 2021.09.30. [연대활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②〉 ‘주거급여와 주거권 보장’
- 2021.10.06. [연대활동] 〈서민주거안정 외면한 대장동 임대주택 축소 규탄〉 논평 발행
- 2021.10.06. [연대활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③〉 ‘임대차 3법과 계속주거권’
- 2021.10.13. [연대활동] 〈무주택자 공동행동 2차〉 보신각 앞
- 2021.10.27. [연대활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④〉 ‘투기근절과 공정과세를 위한 부동산 세제개혁’
- 2021.10.29. [연대활동] 〈무주택자 공동행동 3차〉 보신각 앞
- 2021.11.03. [연대활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⑤〉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한 주택금융개혁’

- 2021.11.06. [연대활동] 진보포럼 ‘베를린시민의 선택 대형 부동산 업체 소유 주택의 몰수와 공공소유화’ 공동 주최
- 2021.11.09. [연대활동] <불평등끝장 대선유권자네트워크> 출범식
- 2021.11.15. [연대활동]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후퇴선언 강력 규탄한다> 성명 발표
- 2021.11.17. [연대활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⑥> ‘공공주택 공급 확충과 위상 제고’
- 2021.11.18. [연대활동]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출범식, 청와대 앞
- 2021.11.24. [연대활동]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 용산정비창 기지 앞
- 2021.11.24. [연대활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⑦>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 2021.11.30. [연대활동] <사이좋게 주택 불로소득 비과세 확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규탄한다> 성명 발표
- 2021.12.01. [연대활동] <광명시흥 100% 공영개발 촉구> 광명시청 앞 기자회견
- 2021.12.15. [연대활동] <무주택자 공동행동 4차> 보신각 앞
- 2021.12.16. [연대활동]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반대>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
- 2021.12.24. [연대활동] <집부자 특혜 종합선물세트 규탄한다> 성명 발표

<병원비백만원연대> _ 16회

- 2021.03.17. [연대활동]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사업 억압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성명 발표
- 2021.04.28~5.3. [연대활동]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신문광고 모금
- 2021.05.25. [연대활동] <성남시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만 18세 연령확대> 성명 발표
- 2021.06.30. [연대활동]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 출범식
- 2021.08.13. [연대활동] <문재인케어, 절반의 성공 백만원 상한제로 나아가야> 논평 발행
- 2021.08.25. [연대활동]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으로 늘리는 종합비전 수립하라> 성명 발표
- 2021.08.26. [연대활동] <어린이병원비백만원상한제연대 활동백서> 발간
- 2021.09.28. [연대활동] <병원비연대포럼 1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 2021.10.26. [연대활동] <병원비연대포럼 2차> ‘초고가 신약’
- 2021.11.10. [연대활동] <강도영의 병원비와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다> 성명 발표
- 2021.11.25. [연대활동] <병원비연대포럼 3차> ‘주치의제도’
- 2021.12.03. [연대활동] <생명과 직결된 신약 ‘김리아’를 신속히 급여화 하라> 성명 발표
- 2021.12.20. [연대활동] <청년간병인 강도영 우리 사회에 남은 과제는?> 토론회
- 2021.12.21. [연대활동] <병원비연대포럼 4차> ‘공공의료’
- 2021.12.30. [연대활동] <심케어 환영한다> 성명 발표
- 2022.01.13. [연대활동] <생명과 직결된 치료약 ‘김리아’와 ‘키트루다’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 환영> 성명 발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_ 5회

- 2021.01.25. [연대활동]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국회 앞 기자회견
- 2021.05.07. [연대활동] 〈빈곤노인에 대한 불효를 멈추자〉 어버이날 성명 발표
- 2021.09.28. [연대활동]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신문 광고
- 2021.09.30. [연대활동] 〈빈곤노인 샤우팅대회〉 온라인
- 2021.10.05. [연대활동] 〈대선공약 제안: 기초수급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하라〉 기자회견

〈복지국가촛불〉 _ 12회

- 2021.12.30 [복지국가촛불] 92차, 2021년 마무리 복지국가촛불
- 2021.11.26 [복지국가촛불] 91차, 대선 복지 촛불3 우리가 바라는 건강권
- 2021.10.29 [복지국가촛불] 90차, 대선 복지 촛불2 우리가 바라는 주거권
- 2021.09.30 [복지국가촛불] 89차, 대선 복지 촛불1 우리가 바라는 노후
- 2021.08.27 [복지국가촛불] 88차,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 2021.07.30 [복지국가촛불] 87차, 기본소득과 현대국가
- 2021.06.25 [복지국가촛불] 86차,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
- 2021.05.28 [복지국가촛불] 85차, 집걱정없는 세상을 위한 촛불
- 2021.04.30 [복지국가촛불] 84차, 기본소득의 재정 방안
- 2021.03.26 [복지국가촛불] 83차, LH투기와 주거권 연대운동의 방향
- 2021.02.26 [복지국가촛불] 82차,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과 부산 두 도시의 복지정책 공약 이야기
- 2021.02.01 [복지국가촛불] 81차, 주거권 대해부

〈연대기구〉 _ 8곳

- * 어린이부터어르신까지병원비백만원연대
- * 집걱정없는세상연대
- *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 * 복지국가 촛불연대
- * 빈곤사회연대/기초법보장연대
-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공공임대주택두배로
- * 주치의제도도입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 * 미안마지지지시민모임

〈만복뉴스〉 _ 48회

* 발송 대상 - 회원 697명

* 최근 만족뉴스 오픈율 144명 21.9% (컴퓨터 33.9%, 휴대전화 15.8%)

〈독서모임〉 _ 16회

○ 1차 신입회원 독서모임

2021.07.06 1차 온라인 모임(OT 및 1장 오건호 강의 및 토론)

2021.07.20 2차 온라인 모임(2강 보편주의 남재욱 영상 인사 및 토론)

2021.08.03 3차 온라인 모임(3강 주거권, 4강 의료개혁 김종명 강의 및 토론)

2021.08.17 4차 온라인 모임(5강 오건호 강의, 6강 남재욱 강의 및 토론)

2021.08.31 5차 온라인 모임(7강 홍순탁 강의 및 토론)

2021.10.08 장용창 회원님이 회원님께 보내는 편지

2021.10.15 김정아 회원님이 회원님께 보내는 편지

2021.10.22 이세영, 김상은 회원님이 회원님께 보내는 편지

2021.10.29 김현희, 손성준 회원님이 회원님께 보내는 편지

○ 2차 신입회원 독서모임

2021.11.04 2차 신입회원 독서모임 첫 시간(1~2장 및 OT)

2021.11.18 2차 신입회원 독서모임 두 번째 시간 (김종명 튜터링)

2021.12.02 2차 신입회원 독서모임 세 번째 시간 (오건호 튜터링)

2021.12.16 2차 신입회원 독서모임 네 번째 시간 (홍순탁 튜터링)

○ 재정독서모임

2021.05.12 1차 오프라인 모임(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및 OT)

2021.06.15 2차 오프라인 모임(오종현 1~2장, 임유진 3~4장 발제)

2021.07.15 3차 온라인 모임(고현종 5~6장, 이해솔 7~8장, 강지현 9장 발제)

2021.08.19 4차 오프라인 모임(부동산공화국경제사 오종현 1~2장, 박연진 3~4장 발제)

2021.09.23 5차 온라인 모임(고현종 5~6장, 임유진 7~8장)

2021.10.27 6차 온라인 모임(빅니스 이해솔 1~2장, 박남우 3~4장 발제)

2021.11.23 7차 온라인 모임(5~6장 전찬영, 7~9장 임유진)

<사무국 이사>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마당로3길 22 삼성빌딩별관 4층
- * 월세 130만원(부가세 10%) 수도세, 전기세 등 별도
-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칼폴라니연구소 입주

○ 사무실 조감도



○ 강연장 조감도



2. 2021년 활동 평가안

1) 총평

일상 활동의 유지

- 2021년에 내만복의 일상적 활동은 안정적으로 지속됨. 매주 내만복칼럼을 발간하고 회원 뉴스레터를 발송하였으며 주요 사안마다 논평을 발표했음. 특히 대면 활동이 어려운 대신 논평을 통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였음. 내만복의 일상활동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회의체계는 운영위원회를 격월로 전환하였음.

혁신복지 이슈페이퍼 발간

- 1호~6호까지 발간하였음.
- 1호 : 보편주의 재인식
- 2호 : 복지국가 증세방안
- 3호 :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 제안
- 4호 : 연금개혁
- 5호 : 주거정책
- 6호 : 소득보장

대면활동의 위축

- 2021년에도 코로나 지속으로 대면활동이 재개되지 못했음. 세빛사와 공동주최한 연금학교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내만복 내부 소통 활동도 거의 진행되지 못함. 독서모임도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운영위원회 수련회 등도 열리지 못했음.

연금학교 진행

- 1회 : 한국 공적연금 실태 진단
- 2회 : 외국 연금개혁의 이해와 시사점
- 3회 : 우리가 만드는 연금개혁안
- 온라인으로 진행했지만 매회 40~50명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됨.

연대단체 의제 활동

- 병원비 백만원연대
- 집걱정없는세상연대(집걱정끝장넷, 무주택자 공동행동)
-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 빈곤사회연대&기초법 공동행동

2) 주요 의제 활동 평가

<핵심 의제>

병원비 백만원 연대

- 2015년에 출범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2021년 6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로 의제를 확대하여 새로이 출범.
- 출범 이후 매달 병원비포럼을 개최하고 2022년 대선을 맞아 백만원 상한제 정책요구서를 제안했음. 특히 환자단체연합과 함께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건강보험 신속 등재를 위해 기자회견, 논평 활동 등을 벌임.
- 앞으로 연대기구에 참여하는 핵심 조직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상시 의제를 개발할 예정.

집걱정없는세상연대

-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폭등에 맞서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와 서민 주거권 구현을 위한 연대기구로 2021년 6월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출범.
- 집걱정연대는 출범 직후부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국회의 종합부동산세 감세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논평, 토론회 등을 활발히 벌였음. 대선 대응으로는 ‘집걱정 끝장넷’을 조직하여 각 후보에게 정책요구서를 전달하였으며, 각 후보의 부동산주거 공약을 평가하는 토론회도 열었음. 또한 민주노총 등 대중조직과 연대하여 ‘무주택자 공동행동’에 나서면서 주거운동의 핵심 단체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줬다 뺏는 기초연금

- 대선을 맞아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정책 개혁안을 마련했음. 생계급여에서 근로소득이 30% 공제되는 방식대로 기초연금도 30%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공제할 것을 제안. 이를 각 대선후보에게 전달하고 논평 등도 발표했음.
- 이에 이재명후보는 공약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 공제 도입 추진”을 명시하였고, 윤석열후보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10만원 추가 지급 병행”을 명시함. 이에 윤석명 정부에서 생계급여에서 부가급여로 10만원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기대됨.

3) 내만복 운영 평가

회원사업 강화

- 신입회원 독서모임: 2021년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2차례 실시. 각 10~15명 참여. 신입회원 독서모임 참여회원들이 내만복 포럼, 내만복 학교, 복지국가 촛불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회원 기반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재정관련 독서모임 : 세금시민학교 후속모임으로 재정과 관련된 분야로 독서모임 진행. 2021년 3월부터 Zoom으로 진행 중. 5~8명 정기적으로 참가
- 신규회원 선물 증정 : 완료
-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회원수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음. 2022년 3월말 현재 628명 정도 유지하고 있음.

사무실 이전 및 상근인력 보강

- 2021년 11월의 현 사무실로 이전함. 강의실, 회의실, 강의공간으로 구성됨.
- 사무실 유지비용은 총 170만원 수준이나 세빛사와 칼폴라니연구소와 함께 사용하여 매월 내만복 순 부담비용은 100만원 수준임.
- 2021년 9월 1명의 상근간사를 추가로 채용하였으나, 11월에 퇴사하여 현재 사무국장 1명 상근하고 있음.
- 상근인력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재검토 필요함.

〈안건 2〉

2021년 결산안

기간 : 2021.1.1~12.31 (단위 : 원)

2021년 결산안 - 수입부				
항목	세부항목	2021예산	2021결산	비고(결산-예산)
전년도 이월금		10,307,941	10,307,941	0
회비	CMS+자동이체	121,200,000	121,127,840	-72,160
후원금	일시 후원	9,700,000	8,751,454	-948,546
사업수입	내만복 학교	1,000,000	0	-1,000,000
	출판 수입 (인세 등)	100,000	79,000	-21,000
잡수익	이자수입, 유튜브	0	126,742	+126,742
공적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0	48,380	+48,380
합계		142,307,941	140,441,357	-1,866,584

- 2021년말 계좌잔액은 52,199,313원이나, 혁신복지 내부용역, 퇴직연금 미지급액 등을 차감하여 34,146,433원으로 기재

2021년 결산안 - 지출부

항목	세부 내역	2021예산	2021결산	비고(결산-예산)
인건비	급여	45,000,000	36,290,690	-8,709,310
	사회보험료	5,250,000	3,330,590	-1,919,410
	퇴직연금	3,750,000	2,500,000	-1,250,000
	작년분 지급	4,712,770	4,712,770	0
회의비	총회	100,000	516,250	+416,250
	운영위원회	500,000	383,380	-116,620
	정책위원회	1,000,000	247,000	-753,000
	기획팀	1,000,000	50,000	-950,000
	기타 회의비	300,000	59,700	-240,300
사무소 운영비	임대료	8,700,000	5,002,588	-3,697,412
	보증금	10,000,000	0	-10,000,000
	신규사무실 가구, 비품	3,000,000	11,613,500	+8,613,500
	전산기기	0	199,000	+199,000
사업비	혁신복지체제 내부용역	20,000,000	20,000,000	0
	정책위원회 연구활동비	5,000,000	0	-5,000,000
	내만복백서	0	0	0
	내만복학교	2,000,000	0	-2,000,000
	내만복포럼	3,600,000	1,636,870	-1,963,130
	운영위원 수련회	1,000,000	0	-1,000,000
	회원사업비	12,000,000	8,003,300	-3,996,700
	만복TV	1,250,000	0	-1,250,000
	칼럼 원고료	1,500,000	1,440,000	-60,000
	연대사업비	2,000,000	1,841,750	-158,250
	온라인사업비	2,000,000	2,491,652	491,652
	기타사업비	200,000	0	-200,000
기타	지급수수료	720,000	2,464,384	1,744,384
	복리후생비	1,800,000	415,400	-1,384,600
	기장수수료	1,210,000	1,213,300	+3,300
	소모품비	600,000	939,590	+339,590
	우편요금	600,000	142,440	-457,560
	홈페이지 구축비	0	0	0
	용역비	0	665,600	+665,600
	잡비	1,200,000	135,170	-1,064,830
예비비		2,315,171	0	-2,315,171
합계		139,994,791	106,294,924	-33,699,867

● 2022년 이월금 34,146,433원

감사보고 1

수 신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참 조 : 사무국장 귀하
발 신 : 이정회계법인 이사 윤주영
사 안 : 2021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감사 결과

귀 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 다 음 -

1. 감사 경과

2022. 3. 19. 토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이정회계법인 회의실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홍순탁, 감사 윤주영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2021년 회계 서류들을 실사하며 서면 감사를 실시함.

2. 감사 결과

- (1) 계좌번호 국민은행 815601-04-112337의 은행 입출금내역, 2021년 결산서, 2021년 월별 수입지출부(1월~12월)을 비교 분석한 결과 모두 일치함.
- (2) 수입은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출은 필수 인건비 및 사무소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음.
- (3) 2021년 이후 회원증가로 재정이 건전해졌음. 다만, 사무실 임대료 등 고정비용도 증가하였으므로, 회원 유지 등 재정안정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함.
- (4) 일시적으로 증가한 회원이 감소추세에 있는 바, 일정규모의 적립금을 유지하여 만약의 상황에서 단체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용 충당이 가능하도록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2022. 3. 21.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감사
이정회계법인 이사
윤주영 (날인 생략)

감사보고 2

수 신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참 조 : 사무국장 강지현 귀하
발 신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순
사 안 : 2021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감사 결과

귀 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 다 음 -

1. 감사 경과

2022. 3. 18. 금요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강지현이 이메일로 감사자료를 발송함. 감사 김영순이 2021년 회계 서류들을 심사하며 서면 감사를 실시함.

2. 감사 결과

- (1) 계좌번호 국민은행 815601-04-112337 은행 입출금내역, 2021년 결산서, 2021년 월별 수입지출부(1월~12월)을 비교 분석한 결과 모두 일치함.
- (2) 코로나-19의 지속으로 대면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축소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예산대로 집행이 된 것으로 보이며, 활동 보고와 일치하는 적절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졌음.
- (3) 전년 대비 회비 수입이 증대했고 후원금도 확보해 수입이 안정되고 사업추진에 좋은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임. 대부분의 수입이 회비 및 특별회비로 구성되어 있던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수입원을 다변화하고자 한 노력이 엿보이며, 지출 역시 필수 인건비 및 사무소 운영비 외에도 다양한 사업비 지출이 이루어져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업 다각화를 시도했다고 생각됨.
- (3) 전년의 5배가 넘는 34,146,433원의 이월금 발생하여 재무구조가 건전하나, 향후 사업 확대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입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2. 3. 22.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감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순 (날인 생략)

〈안건 3〉

2022년 내만복 활동 계획안

1. 일상 활동체계 재정비

일상 사업에 대한 재검토

- 우선 검토 대상 : 내만복칼럼, 복지국가촛불
- 내만복칼럼은 필진 섭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내만복 운영위원 중심으로 고정 필진을 구성하는 등 내만복 칼럼 운영방안을 재정비할 예정임.
- 복지국가 촛불은 행사컨셉이 명확하지 않고 내만복 운영위원/회원의 참여가 저조함. 연대단체인 세빛사에 이슈가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제안 예정임.

내만복 포럼 내실화

- 1년 계획을 기획하여 진행 예정임.
- 혁신복지 이슈페이퍼 중 2~3회로 나누어 발표할 대상이 아닌 1회로 발표할 주제로 내만복 포럼을 진행할 예정임.
- 대상후보 : 노동시장 개혁, 새로운 일자리 보장, 부동산/주거 개혁, 생활금융, 장애인복지 등

내만복 학교 진행

- 1년 계획을 기획하여 진행 예정임.
- 혁신복지 이슈페이퍼 중 2~3회로 나누어 발표할 대상은 포럼이 아닌 학교로 진행할 예정임.
- 대상후보 : 빈곤제로 소득보장, 실시간 소득파악, 조세개혁, 사회서비스 혁신, 지역사회 통합돌봄

2. 내만복 운영체계 변화

상근인력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재검토

- 상근자 채용이 쉽지 않은 점, 2021년에 회원관리시스템을 변경하여 행정업무가 줄어든 점, 2022년 예상되는 행정관리업무인 내만복 백서 제작, 홈페이지 개편 등도 외부인력을 활용할 예정인 점 등을 감안하여 상근자 추가채용 없이 사무국장 1인 상근방식을 유지할 예정임.
- 대신 임원진, 운영위원의 참여 및 내만복 활동 기획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참여가 확대되는 임원진, 운영위원에 대해서는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임. 구체적으로는 각종 연대활동, 내만복 포럼/내만복 학교 등의 기획 등에 참여가 필요함.

운영위원회 활성화

- 운영위원회 내부에 기획팀 성격의 가진 소규모 팀을 운영할 예정임.
- 신입회원용 입문서 제작, 복지 의제 발굴 등을 위해 정기적인 미팅을 진행할 예정임.

정책위원회 활성화

- 혁신 복지체제 이슈페이퍼를 내만복포럼, 내만복학교 등의 방식으로 공론화
- 정례 정책위원회 모임: 의제 심화 세미나 및 의제 기획
- 정세 개입 논평 발표: 필요할 때마다 정책 논평 발표

내만복 백서 제작

- 취지 : 내만복 10년을 맞아 기존 활동 평가하고 의미와 과제 정리, 내만복 10년 활동 정리
- 작업팀 : 오건호 정책위원장, 이상호 전 사무국장, 전찬영 전 간사
- 기간 : 2022년 2월 ~ 5월
- 예산 : 500만원
- 구성 : 도입, 1부 10년사, 2부 주요 의제 활동, 3부 연도별 활동자료, 10년 영상백서

3. 주요 의제 활동

기존 핵심 의제사업의 구체적 결실

- 내만복은 주요 의제를 기획하고 연대 네트워크를 구성해 공론화 활동을 해 왔음. 지금까지 주요 활동 의제는 사회복지세, 찼다뺐는 기초연금, 어린이병원비, 주거권 등으로 요약됨.
- 윤석열정부에서 ‘찼다 뺐는 기초연금’은 일부 부가급여 지급 형식으로 부분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됨. 사회복지세는 증세 지형이 축소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하고, 병원비는 백만원상한제 의제로 상시 활동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 주거권은 ‘집걱정없는세상연대’를 중심으로 더욱 약진할 것으로 예상됨.

새로운 역점 의제 사업

- 내만복의 새 10년을 맞이하여 역점 의제 기획이 필요. 우선, 주거권은 윤석열정부에서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집걱정없는세상 연대 활동력도 높아서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연금개혁도 내만복이 참여할 의제임. 윤석열정부 초기에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내만복의 연금개혁 방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돌봄 의제도 역점을 두고 준비해야할 의제. 지난 10년 복지가 현금급여 중심으로 발전해왔다면 이제는 돌봄체제 구축화에 전면 나서야 할 때. 현재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간병 등 돌봄 의제가 사회적으로 부상되어 있음.

4. 회원 사업 및 사무인프라

회원관리

- 2021년 초 700명을 넘었던 회원수가 점차 감소하여 2022년 3월 628명 수준임.
- 사무실 이전으로 고정비용이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620~630명의 회원은 유지되어야 함.
- 회원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근인력은 갖추지 못했으나, 새로운 복지 의제 발굴, 정권교체에 따른 정부의 정책방향 변화 등에 입장 표명 등 활동 강화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내만복의 존재 의미를 알리는 방향으로 회원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회원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에 시작한 재정관련 독서모임은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신입회원 독서모임은 입문서 제작이 완료되면 연 1~2회 진행 예정입니다.
-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 내만복의 공간을 활용한 대면활동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타

- 임금인상, 명절 상여금 등 상근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예정임
- 외주인력 활용을 통해 홈페이지 개편 예정임

〈안건 4〉

2022년 예산안

기간 ; 2022.1.1~12.31 (단위 ; 원)

2022년 예산안 - 수입부				
항목	세부항목	2022 예산	2021결산	비고(예산-결산)
전년도 이월금		34,146,433	10,307,941	+23,838,492
회비	CMS+자동이체	120,000,000	121,127,840	-1,127,840
후원금	일시 후원	3,000,000	8,751,454	-5,751,454
사업수입	내만복 학교	1,000,000	0	+1,000,000
	출판 수입 (인세 등)	100,000	79,000	+21,000
잡수익	이자수입, 유튜브	100,000	126,742	-26,742
공적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0	48,380	-48,380
합계		158,346,433	140,394,998	+17,951,435
이월금 제외시		124,200,000		

- 2021년말 계좌잔액은 52,199,313원이나, 혁신복지 내부용역, 퇴직연금 미지급액 등을 차감하여 34,146,433원으로 기재

2022년 예산안 - 지출부				
항목	세부 내역	2022 예산	2021결산	비고(결산-예산)
인건비	급여	52,150,000	36,290,690	+15,859,310
	사회보험료	6,258,000	3,330,590	+2,927,410
	퇴직연금	4,345,833	2,500,000	+1,845,833
	작년분 지급	0	4,712,770	-4,712,770
회의비	총회	500,000	516,250	-16,250
	운영위원회	500,000	383,380	+116,620
	정책위원회	1,000,000	247,000	+753,000
	기획팀	1,000,000	50,000	+950,000
	기타 회의비	300,000	59,700	+240,300
사무소 운영비	임대료	12,000,000	5,002,588	+6,997,412
	보증금	0	0	0
	신규사무실 가구, 비품	0	11,613,500	-11,613,500
	전산기기	5,000,000	199,000	+4,801,000
사업비	혁신복지체제 내부용역	0	20,000,000	-20,000,000
	정책위원회 연구활동비	5,000,000	0	+5,000,000
	내만복백서	5,000,000	0	+5,000,000
	내만복학교	2,000,000	0	+2,000,000
	내만복포럼	3,600,000	1,636,870	+1,963,130
	운영위원 수련회	1,000,000	0	+1,000,000
	회원사업비	2,000,000	8,003,300	-6,003,300
	만복TV	1,250,000	0	+1,250,000
	칼럼 원고료	1,500,000	1,440,000	+60,000
	연대사업비	3,000,000	1,841,750	+1,158,250
	온라인사업비	3,600,000	2,491,652	+1,108,348
기타사업비	200,000	0	+200,000	
기타	지급수수료	3,600,000	2,464,384	+1,135,616
	복리후생비	3,600,000	415,400	+3,184,600
	기장수수료	1,320,000	1,213,300	+106,700
	소모품비	2,400,000	939,590	+1,460,410
	우편요금	600,000	142,440	+457,560
	홈페이지 구축비	3,000,000	0	+3,000,000
	용역비	1,200,000	665,600	+534,400
	잡비	1,200,000	135,170	+1,064,830
예비비	0	0	0	
합계		128,123,833	106,296,945	+21,826,888

〈안전 5〉 기 타

〈2022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기현주 대표 19:41

네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내가 만든 복지국가 공동대표 맡고 있습니다.
기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순탁 운영위원장 19:50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승탁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현주 대표 19:59

네 오늘 2022년 정기총회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안전 네 가지가 있고요 전년도 평가 결산 그리고 당해 연도 계획 예산 관련된 안전이
있고요 혹시 이거 이외에도 기타로 논의하고 싶으신 안전이 있으신 회원이 계시면은 지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현주 대표 21:12

네 특별히 없으신 걸로 그럼 알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께서는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현 21:32

총회 개최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사무국장 강지현입니다.
재적 325명 중 재적 과반은 163명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사고 0명 위임 162명 온라인 출석 9명 오프라인 출석 6명 총 13분 해서
총 185명으로 총회 성사가 되었습니다.
성원 보고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기현주 대표 21:57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회원 이 총회의 성원으로 되신 회원이 3325분이신데요.
많죠 총회 회원권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325분인데 오늘 총회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받았습니
다.

기현주 대표 22:17

자료 1과 2는 발족 선언문과 내만복 소개 자료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매년 좀 다시 환기하고자 총회 자료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올해 내만복이 발족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1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모레를 또 어떻게 보낼지 이후에 총회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현주 대표 22:42

첫 번째 안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인데요. 첫 번째 안건은 2011년 내만복 활동 평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홍순탁 위원장께서 해주시겠는데요.

활동 요약은 사무국장께서 먼저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홍순탁 운영위원장 23:03

지금 제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앉아주시죠

강지현 23:10

자료 공유하면서 지금 평가 공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채팅방에 저희 총회 자료를 올려두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뒤에 저희 운영위원장님과 대표님 뒤에 이제 자료도 같이 띄우니까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강지현 23:30

쭈에서 예예

홍순탁 운영위원장 23:32

예 알겠습니다.

강지현 23:33

그럼 쭈 공유를 해서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현 23:49

예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오건호 정책위원장 23:51

예 예 잘 보입니다.

강지현 23:55

네 발족 선언문 명문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개별적으로 챙겨서 읽어봐 주세요.

읽어봐 주시고 내만복 소개도 꼭 한번 챙겨서 읽어봐주세요.

신입 회원님들 저희 운영위원회 구성 다 보시다시피 전문가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챙겨봐 주시고

강지현 24:18

제가 이제 보고드릴 부분은 간단하게 양쪽 부분입니다.

연도별 회원 가입 수 저희 현재 회원분들은 총 628명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내가 만든 복지 국가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보시면서 이제 체크하실 수 있으십니다.

올해 작년 초에 이제 홍센터 운영위원장님 이제 들어오시면서

강지현 24:41

회원분들께서 대폭 이제 증가를 하셨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내 활동 평가 이제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 현황은 이제 논평성명 이제 지난해와 같은 이제 수준으로 했는데 이게 좀 쪼개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대 사업 주요 연대 활동에 대해서도 이제 개별적으로 표기를 하면서

강지현 25:06

활동의 양은 오히려 늘었는데 약간 이제 숫자는 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대 활동으로 나간 논평 성명은 연대 활동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만보 칼럼 지난해보다 이제 2회 더 나갔습니다.

이제 2회 더 나갔다는 것은 그냥 매주 매주 이제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지현 25:27

연구 활동은 저희가 혁신 복지 체제팀을 연구팀을 꾸렸고 그 연구팀 활동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만보 포럼 네만 포럼은 작년에 2회 줄어서 7회 총했습니다.

네만보 포럼은 작년에 이제 복지국가 촛불과 같이 개최를 하기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콜라보를 한 것을 이외를 빠지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치면 네만 포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했다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지현 25:56

독서 모임은 작년에 이제 새로 들어오신 신입 회원님들도 대단히 많으셨고 송광영 회원님도 저희 독서 모임에서부터 같이 해 주셨던 분이시고 회원 예우를 늘려나가자 이런 저희 운영상의 기조를 따라서 독서 모임을 대폭 늘렸습니다.

신입 회원 독서 모임 2회 그리고 재정 독서 모임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6회 진행을 했습니다.

강지현 26:21

만복 티비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유튜브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실무 조정상의 관계로 숫자가 줄었습니다.

만복 뉴스는 저희가 뉴스레터 매주 보내드리는 매주 월요일 날 보내드리는 뉴스 레터입니다. 이것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갔습니다.

강지현 26:42

블로그 관련해서는 저희 블로그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숫자가 다 들어오셨고 이제 누적된 것들은 숫자가 매우 크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연대 활동 비율들을 구체적으로 좀 세분화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작년에도 연대 활동이 있었지만 기록 자체를 올해부터 새롭게 했기 때문에 작년 기록은 없고 올해부터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강지현 27:08

직격정 없는 세상 연대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부동산 주거권 문제 관련해서 가장 열심히 연대하고 있고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들 논평 칼럼 기자회견 그리고 집회 거리 행진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35회 정도 진행을 했고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운동을 이제 도입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병원비 연대는 16회 정도

강지현 27:29

그리고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 연대 쫓다 뺏는 기초연금 운동은 총 5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복지국가 촛불은 이제 복지국가 관련된 이 포럼 비대면 줌으로 활동을 주로 했고 총 12회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홍순탁 운영위원장 27:46

참여하고 있는 연대

강지현 27:47

기구는 총 8개 연대 기구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회의 구체적인 디테일 자료를 보면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렸던 것처럼 회원 수는 작년에서 올해 한 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

회의 자료들을 꼭 봐주시면 어떤 성명 논평들을 내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강지현 28:08

1년 동안 내가 만든 복지 활동한 부분들이니까 잘 챙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혁신 복지 체제 이런 것들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 운영위원장님께서 이제 발표를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주실 테니까 운영위원장님께 평가안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탁 운영위원장 28:39

저는 이 화면을 쓰지 않고 줌 화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줌 화면을 봐주시고

홍순탁 운영위원장 28:47

네

홍순탁 운영위원장 28:49

저기 잠깐만 저희 사무실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게 몇 페이지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페이지가 19페이지거든요.

19페이지가 저희 사무실인데요. 작년 11월에 저희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정치 발전소에 세들어 살고 있었어요 작년 11월에 지금 저희 총회를 하고 있는 이 공간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홍순탁 운영위원장 29:17

지금 보시면 저희 사무 공간이 있고 아래쪽에 총회를 하고 있는 강연장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별도의 회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실 회의실 강연장을 가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 좀 코로나가 좀 마무리되면 저희 사무실에 모셔서 강의도 하고 포럼도 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순탁 운영위원장 29:44

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고요 저희 이제 2021년도 활동 평가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국장님께서 쪽 저희가 발표했던 칼럼 논평 뉴스레터를 보여드렸지만 저희 일상적 활동은 안정적으로 지속됐습니다.

대면 활동이 좀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제 논평을 통해서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구요

홍순탁 운영위원장 30:09

그래서

홍순탁 운영위원장 30:09

내만복이하고 있는 일상 활동은 좀 안정화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로 보면 저희 운영위원회는 격월로 2개월에 한 번씩 했고요 저희 2021년에 저희 내만복 활동에서 굉장히 주요했던 역점을 두었던 부분이 혁신 복지 이슈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홍순탁 운영위원장 30:30

총 12개의 페이지가 발간될 예정이고 현재까지 6호까지 나왔습니다.

1호에 보편주의의 재인식 2호의 복지 국가 증세 방안 3호로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4호후 연금 개혁 5호 주거 정책 6%로 소득 보장 이렇게 총 6개가 나왔고요 앞으로도 6개 정도가 더 나갈 거고 저희가 좀 어떤

홍순탁 운영위원장 30:57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변화에 맞춰서 복지국가가 새로운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저희 내만복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보고서 풀 버전을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시간 내서 읽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저희 대면 활동은 참 못했고요 좀 아쉬운 점이

홍순탁 운영위원장 31:24

저희가 오프라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이 공간을 활용하지 못해서 제가 통탄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올해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홍순탁 운영위원장 31:35

어

홍순탁 운영위원장 31:36

이 공간을 활용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순탁 운영위원장 31:42

뭐

홍순탁 운영위원장 31:43

연도로 보면 올해 하긴 했는데 2월에 진행해서 제가 총회 자료 넣어놨는데요.

원래 저희가 내만복 학교라고 이름으로 해서 건강보험 연금 세금 등을 1회가 아니라 한 3회에서 5회 6회 이런 식으로 학교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근데 2021년에는 다른 학교는 못 했었지만

홍순탁 운영위원장 32:07

올 2월에 연금 학교 대선 과정에서 국민연금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에 그 연금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연금 학교를 했고요 사실 이 부분도 처음에는 기획할 때는 오프라인으로 하고 싶었었

는데 또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온라인으로 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늦은 시간까지 열띤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회에는 한국의 공적연금 실태 진단을 했었고요 이외로는

홍순탁 운영위원장 32:34

외국 연금 개혁의 이해와 14점 3회로는 우리가 만든 연금 개혁안 이렇게 3회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넷만보기 연대 단체 활동이 많은데요.

병원비 100만 원 연대 집 걱정 없는 세상 연대 빈곤노인 기초 연금 보장 연대 빈곤사회 연대 기초공동행동 이렇게 주로 크게 4가지 연대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홍순탁 운영위원장 33:02

21페이지 넘겨주시죠

홍순탁 운영위원장 33:05

네 가지 연대 활동에 좀 해서 말씀드리면 병원비 100만 원 연대는

홍순탁 운영위원장 33:11

어

홍순탁 운영위원장 33:12

내만보호 기존 회원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5년부터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 추진 연대를 했었고요 어린이 병원비에서 전체까지 어린이부터 어른신까지 병원 100만 원 연대로 확대해서 작년 6월에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출범 이후에 매달 병원비 포럼을 하고 있고요

홍순탁 운영위원장 33:34

어

홍순탁 운영위원장 33:35

대선 공약으로 병원 상한제 정책 요구서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단체연합과 같이 해서 신약의 건강보험 신속 등재를 위한 각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해 드린 내용을 보면 내만복 포럼도 있지만 병원비 포럼이라는 행사들도 알려드리거든요.

홍순탁 운영위원장 33:56

한번 들어와 보시면 저희가 병원비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특히 2021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홍순탁 운영위원장 34:10

어

홍순탁 운영위원장 34:10

주거 문제가 이슈가 됐는데요. 일단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그리고 서민 주거권 구현을 위해
서 작년 6월에 집 걱정 세상 없는 집 걱정 세상 없는 연대로 출범했습니다.

집 걱정 없는 세상이죠. 제가 읽으면서도 이 아이

홍순탁 운영위원장 34:28

다 생각했는데 그렇죠

홍순탁 운영위원장 34:31

집 걱정 없는 세상이 안 됩니다. 출범 직후부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종부세 감세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논평 토론회 등을 했었고요 대신 대응하면서 집 걱정 끝장 내시라는 좀

홍순탁 운영위원장 34:47

어

홍순탁 운영위원장 34:48

좀 더 확대된 연대 자체 활동을 하면서 각 후보의 정책 요구서 전달 그리고 부동산 공약 평가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홍순탁 운영위원장 34:58

아

홍순탁 운영위원장 34:59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저희 네만보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활동인데요.

기초연금 그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홍순탁 운영위원장 35:10

어

홍순탁 운영위원장 35:12

생계급여에서 공제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벼다 뺀 기초연금이라
고 이름 붙여서 하고 있는데 절충안에 해당하는 거죠.

30%만큼이라도 공제에서 가장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공약을 제
안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는 공약에 명시했었고요 윤석열 후보도 병행 10만 원 추가 지급 병행을 명시

했습니다.

그래서

홍순탁 운영위원장 35:40

윤석열 정부에서도 10만 원이 추가 지급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이 부분은 좀 공약을 지키셨으면 하는 좀 기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연대 활동이고요 내만복 운영 평가로 말씀드리면

홍순탁 운영위원장 35:56

어

강지현 35:57

저희가

홍순탁 운영위원장 35:58

앞서 보신 것처럼 2021년에 회원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들어오신 회원분들께 어떻게 내 만복이 생각하는 가치를 공유할까 고민하면서

홍순탁 운영위원장 36:10

아

홍순탁 운영위원장 36:10

신입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 모임을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회차별로 한 1에서 15분이 들어오셨고 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과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저희 포럼이나 학교 풋볼 등의 참여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올해에도 신입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 모임을 추가적으로 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순탁 운영위원장 36:38

그리고 저희가 2020년에 세금 시민학교를 했었는데요.

이제 시민 세금 시민학교 참여자분들의 어떤 후속 모임 성격으로 재정에 대한 독서 모임을 2022년 3월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오프라인으로 하고 싶었지만 줌으로 주로 했었고요 이 모임은

홍순탁 운영위원장 37:01

어

홍순탁 운영위원장 37:01

5명에서 8분이 정기적으로 참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이제 작년에 올 회원분들한테 내만복을 잘 기억에 떠올리실 수 있게 선물을 뭘 드려야겠다 해서

홍순탁 운영위원장 37:17

어

홍순탁 운영위원장 37:18

텀블러를 드렸고요 텀블러는

홍순탁 운영위원장 37:23

이렇게 생겼습니다.

홍순탁 운영위원장 37:25

이 화면이 잘 잡히나요.

홍순탁 운영위원장 37:29

아마 다 받으셨을 거고요 혹시 작년에 신입 회원이신데 못 받으셨다고 신 분들은 저희 국장님한테 연락을 드리면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만복 운영 관련해서 작년에 이제 역점을 뒀던 부분이 사무실을 옮기고 상근 인력을 보강한 부분이었는데요.

아까 잠깐 소개시켜 드린 대로 저희 11월에 현재 사무실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 회의실에서 강의 공간을 갖추게 됐고요

홍순탁 운영위원장 37:57

어

홍순탁 운영위원장 37:58

사무실 이전했다고 하면 내 만복 재정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대략 170만 원 정도가 관리비 세금 다 포함해서 발생하는데요. 저희가 두 단체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세바사라는 단체 칼폴라니 연구소 두 단체가 저희랑 같이 쓰고 있어서 두 단체가 70만 원 정도를 공동 부담해줘서 내만복은 월 100만 원 정도를 부담하면서 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큰 부담은 아니다.

그래서 좀

홍순탁 운영위원장 38:33

어

홍순탁 운영위원장 38:33

큰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되고 하지만 후원을 늘려야겠다.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그거는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상금 감사를 제가 9월에 한

명 채용했었는데요.

홍순탁 운영위원장 38:47

이제

홍순탁 운영위원장 38:48

개인적인 사정으로 11월에 퇴사해서 현재는

홍순탁 운영위원장 38:52

어

홍순탁 운영위원장 38:53

을 초가 그대로 사무국장 한 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뒤에는 안건 1위 끝이죠.

홍순탁 운영위원장 39:02

네

홍순탁 운영위원장 39:03

저희 내만복 2021년 활동 평가원이 되겠습니다.

기현주 대표 39:09

네 첫 번째 안건 21년 활동 평가 지금 공유받으셨는데요.

혹시 지금 총회 참석하고 계신 회원님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은 질문 주셔도 좋고요 운영 위원께서는 혹시 본인의 활동을 조금 더 어필하시고 싶은 분 있으시면 더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계실까요. 질문이나 덧붙일 의견 있으실까요.

홍순탁 운영위원장 39:44

대부분이

기현주 대표 39:50

네 추가 의견이나 질문 없으신 걸로 제가 봐도 되겠죠.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고 안건 보고 건 마치겠고요 두 번째는 전년도 결산안입니다.

결산안 보고와 감사 보고까지 이어서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홍순탁 운영위원장 40:10

네 저희 안건 2번은 2021년 결산 아니고요 역시 제가 이제 내만복 살림살이의 걱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회비로 한 1억 2천 정도 예산을 했고요 그리고 일시 후원

홍순탁 운영위원장 40:33

등이 한 1천만 원 정도 그리고 기타 내만복 학교나 출판 숲 등에서 2월금을 포함하면 1억 4천 정도가 2021년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회비는 그만큼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1억 2천 예상한 만큼 회비가 들어왔고 일시 후원금이 조금 덜 들어왔지만

홍순탁 운영위원장 40:53

어

홍순탁 운영위원장 40:54

나머지 잡수입 저희 저희 내만복 유튜브가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수입이 생겼습니다. 구글에서 저희가 구글에서 받는 금액이 미미하지만 12만 6천 원이 생겼고요 이게 한 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또 늘기 때문에

홍순탁 운영위원장 41:10

어

홍순탁 운영위원장 41:11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내만복 콘텐츠를 보실 때 끝까지 봐주시면 저희가 받는 광고료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원래 팬클럽 아이돌 팬클럽 분들이 유튜브를 끝까지 안 보지만 끝까지 틀고 주무시는 거 아시죠 내만복 콘텐츠를 틀어놓고 주무시면 내만복에 받는 유튜브 광고 금액이 증가합니다.

홍순탁 운영위원장 41:35

네 그렇게 해서 2021년에 총 수입은 1억 4천 정도의 수입이 잡혀서 산 그러니까 예산과 비교하면 거의 유사한 200만 원 적은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요

홍순탁 운영위원장 41:51

다음 페이지 지출을 봐주시면 저희가 저희는 이제 지출이 크게 인건비 회의비 사무소 운영비 사업비 기타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건비는 저희 상근 직원 인건비고요

홍순탁 운영위원장 42:07

회의는 저희 총회나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각종 회의에서 쓰는 비용들이고 사무소 운영비는 임대료 그리고 사무실 특히 저희가 이번에는 사무실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 세팅 관련된 비용들이 좀 있었고요 가장 큰 비용은 저희가 사업비라고 할 수 있는 비용들인데요.

각종

홍순탁 운영위원장 42:27

어

홍순탁 운영위원장 42:28

정책위원회 연구활동이나 내만복 포럼 학교 그리고 내만복 tv 칼럼 그리고 특히 2021년에는 혁신 복지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업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기타는 사무소 운용 관련해서 소소하게 발생하는 비용이고요 저희가 크게 보면 2021년 예산으로 1억 4천 정도 그러니까 수입만큼 쓸 것으로 예산을 했었는데요.

홍순탁 운영위원장 42:53

어

홍순탁 운영위원장 42:54

사실 좀 덜 쓰게 됐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상근자 채용이 좀 상반기에 하려고 했던 상근자 채용이 늦어졌고 하다 보니까 급여를 좀 덜 지출하게 됐고요 사호소 운영비는 저희가 보증금을 1천만 원 정도는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저희랑 같은 공간을 쓰는

홍순탁 운영위원장 43:17

세바스에서 흔쾌히 전체 보증금을 내주신 덕분에 저희가 보증금 부담이 없어져서 보증금만큼 덜 들어가게 됐고요 저희 신규 사무실을 세팅하면서 300만 원으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이제 없는 계획을 세웠다가 해보니 좀 욕심이 나서 좀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돈을 더 더 쓰게 됐고요

홍순탁 운영위원장 43:39

그리고 사업비로는 혁신 복지는 지출은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연구는 다 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게 회계에서는 발생주의라고 부르는데 현금을 아직 지출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그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진 것은 그 해 비용으로 잡는 게 원칙이어서 혁신지 내부 역 비용은 2천만 원 다

홍순탁 운영위원장 44:02

썼고요 썼고 저희 회원 사업비로 잡혀 있는 부분 이 1200만 원 잡혀 있는 것은 실제 800만 원 집행했는데 대부분이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텀블러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다 보내드렸고 그리고는 저희가 지출이 좀 많이 늘었던 부분은 지급 수수료 부분이 좀 늘었는데요.

저희 회원 관리 시스템이 너무 옛날 버전이어서

홍순탁 운영위원장 44:27

가입하거나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소득공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해서 최신 버전을 프로그램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급 수수료가 좀 늘어났습니다.

나머지는 예산보다 못 쓴 항목들이 많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억 4천을 예상했지만 1억 600 정도밖에 못 썼고요

홍순탁 운영위원장 44:49

3300만 원 정도 덜 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2월급은 3400만 원이 기록됐습니다.

저희 매만복에 감사하는 두 분이 계신데요.

홍순탁 운영위원장 45:03

어

홍순탁 운영위원장 45:04

윤지영 감사님과 김영순 감사님께서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윤지영 감사님께서 감사 결과를 보시면 의견으로 보면 입출금 내역과 다 일치한다는 걸 확인해 주셨고 3번 보시면 2021년 이후로 회원 증가를 건전해졌다는 것을 언급해 주셨는데

홍순탁 운영위원장 45:30

사무실 임대료가 고정 비용이다. 보니까 이제 재정 안정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회원이 사실 700명을 넘어섰다가 조금씩 감소 추세에 있는데요.

홍순탁 운영위원장 45:43

네

홍순탁 운영위원장 45:44

혹시 모를 이제 상황에 대비해서 적립금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순탁 운영위원장 45:55

김영순 감사님도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

홍순탁 운영위원장 45:59

그

홍순탁 운영위원장 46:00

은행 내역 결산서 월별 수입 지출을 다 비교 분석한 결과 일치한다는 걸 확인해 주셨고

홍순탁 운영위원장 46:05

아

홍순탁 운영위원장 46:07

예산안대로 집행됐고 활동보가 일치하는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 수입 증가한 부분 그리고 후원금도 증가해서 이제 좋은 여건이 마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홍순탁 운영위원장 46:23

어

홍순탁 운영위원장 46:25

수입원을 다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이는데

홍순탁 운영위원장 46:28

어

홍순탁 운영위원장 46:30

지출 역시 이제 스위스 인건비 및 사무소 운영비 외에도 다양한 사업 지출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월금이 이제 전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는데

홍순탁 운영위원장 46:42

어

홍순탁 운영위원장 46:43

안정적인 수입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결산과 감사님 감사 보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현주 대표 46:55

네 안건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 혹시 회원님들 궁금하신 점이나 보탬 의견 있으실까요.

기현주 대표 47:06

2021년은 아마 다른 단체들도 그 수

참석자 5 47:10

그럴 텐데요.

기현주 대표 47:11

지난 2년 동안이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으로 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점들이 아마 다 있을 건데 대만복 또한 그런 지점들이 좀 있었구요 다만 이제 저희가 공간을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마련했어요.

이제 올 하반기면 좀 이렇게 다들 이 공간에서 좀 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활발하게 되면 사업을 야심차게 좀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기현주 대표 47:48

네 오 위원장님

오건호 정책위원장 47:50

그러면 아까 우리 결선에서 우리 정책 활동 관련해서 이제 제가 관여한 걸 된 거 두 개만 좀 보완 설명드리면 작년에 정책위원회 활동으로 500만 원이 배정돼 있었는데 정책위원회 활동을 아무것도 못 했어요.

저희가 정책위원분들을 이렇게 선임하고 오프라인으로도 서로 이제 모임을 가질 예정이었는데 작년에 한 차례도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오건호 정책위원장 48:15

이제 올해 코로나가 풀리면 열심히 할 예정이고 예산에도 잡혀 있고요 여기 지금 참여하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정책 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제가 나중에 한번 부탁드립니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정책위원회를 좀 활성화시킬 거고 아까 그 혁신 복지 프로젝트가 지금 이슈 페이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위원들과 외부 연구자들이 함께 결합해서

오건호 정책위원장 48:40

지금 12쪽으로 작업이 진행 중이고 저희 내부 세미나는 다 마쳤고요 지금 초고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6개 나왔고 오늘 장애인 복지 개혁으로 이제 초고가 이제 들어와서 며칠 내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12개가 다 되면 12개를 모아서 저희가 일단 하나의 보고서를 완성할 거고

오건호 정책위원장 49:05

육십 같아서는 이거를 약간 단행본 작업으로까지 애초에 기획은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각 페이지 퍼를 묶어서 또다시 단행만 하는 게 또 손이 많이 가는 거라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다마는 최종적으로는 그 목표를 향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현주 대표 49:27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추가 의견이나 말씀 주실 윤형준 회원께서 좀 채팅방에 기재부는 매번 세수 예측에 실패하던데 대단합니다라고 아주 큰 칭찬을 감사합니다.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세 번째는요

기현주 대표 49:54

네만복 활동 계획안인데 안건 3번과 4번이 활동 계획과 예산이라서 한 번에 두 개 안건을 상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탁 운영위원장 50:07

네 3번이 이제 활동 계획안이고 4번이 그에 따라오는 예산이어서 이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고민이 저희가 일상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좀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럼 학교 이런 것들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칼럼이 필진 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홍순탁 운영위원장 50:37

어

홍순탁 운영위원장 50:38

좀 고정 필자를 정해보자 그래서 운영위원 중심으로 해서 고정 필진을 구성해서 내면 칼럼 운영 방안을 재정비해보자라고 의견을 모았고요 재정비 방안은 남재욱 교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계시고 그 방안이 마련되면 저희가 좀 네마보 칼럼 20을 올해부터는 다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순탁 운영위원장 51:02

그리고 이제 복지국가 촛불이 참 중요한 행사인데요.

10년이 되다. 보니까 좀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홍순탁 운영위원장 51:13

어

홍순탁 운영위원장 51:14

매일 하는 것보다는 좀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으로 저희 같이 활동을 하는 해바사의 제안을 하려고 내만복은 좀 방향을 잡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만복이 입장을 전하는 이제 큰

홍순탁 운영위원장 51:30

이제

홍순탁 운영위원장 51:31

프로그램이 포럼과 학교인데요.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복지국가 비전을 혁신 복지 이슈페이퍼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 복지 이슈페이퍼를 활용해서 올해는 내만복 포럼과 학교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럼은 보통 한 번으로 하고

홍순탁 운영위원장 51:58

어

홍순탁 운영위원장 51:58

학교는 한 주제로 2 3회 또는 5회까지도 했었기 때문에 좀 내용상 여러 차례 나눌 것은 학교에서 할 예정이고요 1회로 할 것은 포럼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다 저희 지금 이슈 페이브 나갔거나 나갈 주제들인데 포럼을 저희가 예상한 대로 본다고 하면 노동시장 개혁

홍순탁 운영위원장 52:21

새로운 일자리 보장 부동산 주거 개혁 생활금융 장애인 복지 등이 저희 포럼의 후보가 될 거고요 그리고 학교로는 빈곤 재료 소득 보장 실시간 소득 과학 조세 개혁 사회서비스 혁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런 주제들이 학교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혁신 복지 이슈 페이퍼 내용을 가지고 포럼과 학교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홍순탁 운영위원장 52:46

좀 관심 가져주시고 행사가 열리면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순탁 운영위원장 52:53

그리고

홍순탁 운영위원장 52:55

저희 이제 내만복 운영 체계 관련해서요.

저희가 상근자를 뽑았었다가 사실 뽑기도 어려웠었는데 좀

홍순탁 운영위원장 53:03

아

홍순탁 운영위원장 53:04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이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내만복 상근인력을 구성해야 할까를 고민을 했었는데요.

현재 저희 운영위원회 결론은 상근자 채용이 쉽지 않고 저희가 아까 지급 수수료 금액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회원 관리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업무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홍순탁 운영위원장 53:26

내만복 백서 10주년을 기념해서 백서 제작 예정돼 있고 홈페이지 개편 예정돼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외부 인력을 좀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순탁 운영위원장 53:38

어

홍순탁 운영위원장 53:39

그런 많은 행정 인력이 들어간 업무를 외부 인력을 활용할 예정인 걸 고려해서 상근자 추가 채용 없이 일단 사무국장 1인 상근 방식을 유지할 예정이고요 그 대신 저희 이제 임원진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정책위원장이 임원진이나 운영위원회 참여를

홍순탁 운영위원장 54:01

좀 확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 저희 운영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데요.

한 2~3년 전에는 저희 기획팀이 있었고요 근데

홍순탁 운영위원장 54:19

작년에는 기획팀을 따로 운영하지는 않았었는데

홍순탁 운영위원장 54:23

좀

홍순탁 운영위원장 54:24

올해는 기획팀 성격의 소규모 팀을 만들어서

홍순탁 운영위원장 54:29

아

홍순탁 운영위원장 54:29

운영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입 회원용 독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쓴 책이 있거든요.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2016년 강의를 책으로 엮은 거다. 보니까 최근 6년간의 변화를 반영 못해서 이런 인문서를 제작해보자

홍순탁 운영위원장 54:51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런 주제부터 시작해서 운영위원회 내부에 소규모 팀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오건우 정책위원장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작년에 정책위원회 활동비가 집행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산은 동일하게 배정할 예정에 있고요 혁신 복지 이슈 페이퍼를 가지고 포럼 학교 공론화 이후에도

홍순탁 운영위원장 55:16

정책위원회 모임을 정례화해서 의제를 심화하는 세미나 그리고 의제를 기획하는 모임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논평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바뀌었는데 아마도 할 말이 많아질 것 같고요 저희가 할 말이 많아질 것 같고 정세 개입하는 논평을 제때 발표하도록 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순탁 운영위원장 55:40

그리고 저희 네 번째 올해 백서 제작이 예정돼 있는데요.

저희 10주년을 맞아서 기존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홍순탁 운영위원장 55:49

이렇게

홍순탁 운영위원장 55:50

그동안의 활동 활동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는 백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고건우 정책위원장이 전체 총괄하시면서

홍순탁 운영위원장 56:01

어

홍순탁 운영위원장 56:02

저희가 한 번 인연 맺었던 부분을 잘 놓지 않기 때문에 이상호 전 사무국장님 그리고 전찬영 전 간사님이 결합해서 백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탁 운영위원장 56:12

그래서

홍순탁 운영위원장 56:13

5월까지 지금 작업에 착수했고요 5월까지 해서 내용은 보면 저희 신년사 주요 의제 활동 연도 별 활동 자료 그리고 영상 백서까지 해서 백서를 제작할 예정에 있으니까요.

나중에 나오면 보시면 내만 보기 10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구나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주요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주요 의제 활동으로 보면

홍순탁 운영위원장 56:42

어

홍순탁 운영위원장 56:45

내만복이 그동안 주요 의제를 연대 네트워크를 통해서 했었는데요.

지금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세 줬다 빼는 기초연금 어린이 병원비 주거권 등을 해왔습니다.

그중에서 저 다 빼는 기초연금은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부분 성과를 낼

홍순탁 운영위원장 57:05

공약을 지킨다고 하면 부분 성과는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요 하회복지세는 최근에 증세 얘기가 참 논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좀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병원비는 이제 병원 100만 원 이제 100만 원 상한제 의재로

홍순탁 운영위원장 57:25

좀 더 상시적인 활동 체계를 갖춰 나가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거권은 작년에 활동이 가장 활발했고 집 걱정 없는 세상 연대를 중심으로 더욱 약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저희 고민은 이거 말고 좀 새로운 의제를 기획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이 있고요 그중에서는 연금 개혁

홍순탁 운영위원장 57:48

하나의 큰 후보가 될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때 연금 개혁이 제대로 논의가 안 됐었는데 5년마다 연금은 추계를 계산을 다시 하고 개혁 방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 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때 내만복이

홍순탁 운영위원장 58:11

어

홍순탁 운영위원장 58:12

어떤 연금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논의를 주도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돌봄 의제도 저희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의제인데요.

지금 10년 동안 주로 현금 급여 중심으로 복지가 발달해 왔는데 이제는 돌봄 체계가 중심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돌봄 의제에 대해서도 올해는 관심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홍순탁 운영위원장 58:39

저희 회원 사업 및 이 사무 인프라 좀 말씀드리면

홍순탁 운영위원장 58:43

음

홍순탁 운영위원장 58:44

저희가 작년 초에는 일시적으로 700명을 넘었었는데요.

지금은 3월 현재 628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뒤에서 보시면 지금 회원 수는 유지가 되어야 저희 이제 각종 고정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서

홍순탁 운영위원장 59:03

어

홍순탁 운영위원장 59:04

최소한 지금 회원은 지키자 이런 것이 저희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회원 발굴에 있어서는 저희가 저희 스타일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회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스킨십은 못해왔고요 이제

홍순탁 운영위원장 59:21

어

홍순탁 운영위원장 59:22

저희가 활동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 저희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이제 찾아서 들어오시고 저희는 그 회원들을 방목하는

홍순탁 운영위원장 59:32

네

홍순탁 운영위원장 59:33

그런 이였었는데

홍순탁 운영위원장 59:39

네 저희가 올해도 저희 활동을 더 열심히 해서 저희 내만복 활동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홍순탁 운영위원장 59:48

아

홍순탁 운영위원장 59:48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이 저희 어떤 회원 관리의 큰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원 사업으로 하고 있었던 독서 모임들은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 공간을 가지게 됐으니까 코로나만 좀 여건이 개선되면 대면 활동도 좀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순탁 운영위원장 01:00:13

여기까지가 저희 활동 예산 활동 계획이고요 31페이지 봐주시면 그에 해당하는 예산안이 있습니다.

예산을 보시면

홍순탁 운영위원장 01:00:25

음

홍순탁 운영위원장 01:00:27

저희가 지금 월 회비가 1천만 원 정도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회원이 유지된다고 봤을 때 그래서 올해는 회원 느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재 회원을 잘 유지하자가 목표여서 그 정도 수준으로 회비 예산을 잡았고요 기타 예산으로는 후원금

홍순탁 운영위원장 01:00:50

그리고 일시적인 후원금 학교 출판 수입 유튜브 등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유튜브는 여기 들어 오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예산을 꼭 초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2월금을 제외하고는 한 1억 2400 정도 예상되고 2월금이 있어서 저희 총 예산은 1억 5800 수입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홍순탁 운영위원장 01:01:20

32페이지고요

홍순탁 운영위원장 01:01:24

지출을 봐주시면 인건비 상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홍순탁 운영위원장 01:01:32

어

홍순탁 운영위원장 01:01:33

회의비는 작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도 대부분 못 썼기 때문에 잡아본 상태였고 사무소 운영비는 저희가 월 100만 원 부담하면 유지가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홍순탁 운영위원장 01:01:48

1200만 원 정도 임대료 잡혀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전산기기를 구매를 못했었는데 좀 예산 여유가 있어서 올해는 전산기기를 좀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로 보면 혁신 복지는 작년에 다

홍순탁 운영위원장 01:02:04

아

홍순탁 운영위원장 01:02:05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는 없을 거로 예상되고 하지만 이 정책위원회 연구활동비는 500만 원을 배정해서

홍순탁 운영위원장 01:02:12

어

홍순탁 운영위원장 01:02:13

정책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홍순탁 운영위원장 01:02:15

아

홍순탁 운영위원장 01:02:16

활용할 예정이고요 대만복백서에 500만 원 예산이 배정돼 있고 기타 학교도 작년에 못 했지만 올해는 200만 원 예산을 배정해서 학교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포럼도 작년에 비해서는 좀 더 하려고 예산을 결산 대비 증액을 했고요

홍순탁 운영위원장 01:02:34

어

홍순탁 운영위원장 01:02:35

회원사업비는 작년에 텀블러 선물을 드리게 위해서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올해는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홍순탁 운영위원장 01:02:45

음

홍순탁 운영위원장 01:02:45

연대 사업비는 저희가 좀 늘렸습니다.

연대 사업비는 작년에 180만 원 정도 집행했는데 내만복 재정이 좋아졌다는 소문이 여기저기 나서 그런지 연대단체에서 내만복 역할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좀 늘려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순탁 운영위원장 01:03:03

그리고

홍순탁 운영위원장 01:03:04

기타로는 저희가 어떤 사무 공간을 가짐에 따라서 고정 비용 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복리후생비나 소음품비 잡비 등을 예산을 배정했고요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외주비 그리고 용역비로 해서

홍순탁 운영위원장 01:03:23

구축비 300 용역비 120 정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올해는 새롭게 단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숫자를 봐주시면

홍순탁 운영위원장 01:03:37

어

홍순탁 운영위원장 01:03:37

수입 예산이 1억 5800인데 사실 2월금을 빼면 1억 2400이고요 그러니까 2월금 빼면 1억 2400이 올해 수입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을 살짝 초과하는 1억 2800 정도를 올해 쓰려고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금의 일부를 이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홍순탁 운영위원장 01:03:56

아

홍순탁 운영위원장 01:03:58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면 올해 수입 내에서 지출만큼은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현주 대표 01:04:13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올해 활동 계획 내용과 예산안에 궁금하신 점이거나 보텔 말씀 있으시면은

네 말씀해 주시죠

홍순탁 운영위원장 01:04:25

해주시고

오건호 정책위원장 01:04:34

우리 아까 사업에 우리 이제 새롭게 발굴하고 추진할 의제로 주거권 연금 돌봄 있잖아요.

그죠 돌봄은 우리가 사실 본격적으로 못해 본 의제여서

오건호 정책위원장 01:04:49

우리 내만복의 공동대표이신 기현주 선생님 그리고 요 앞 요즘 전면에 계신 김연아 선생님 또
우리 한국 사회 최고의 돌봄 전선에 계신 분들인데 돌봄 연구 전선에 우리 공동 대표님이
사회를 보고 계시니까 김연아 선생님 우리 돌봄 우리 어떻게 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참석자 5 01:05:14

글쎄요 열심히 해야죠

오건호 정책위원장 01:05:18

회원으로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돌보면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참석자 5 01:05:23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제이긴 한데 이번에 이렇게 돌봄 정책을 만들어냈던 안상훈 교수나 어
떻게 또 사회적 경제 부문의 조상민 교수나 이런 분들이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를 약속하
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돌봄에 있어서 얼마나 국가 역할이나 정부 역할을 잘해낼지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도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
니다.

오건호 정책위원장 01:05:51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상훈 교수가 윤석열 캠프에 결합돼서 중책을 맡으셨는데 아마 차기 정
부에서도 일을 하시게 되면 네 워낙 그분이 사회 서비스를 강조하시는 분이어서 현행 체제
를 어떻하든 이렇게 한번 다시 뒤흔드는 시도는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논점도 생기니까 그 논점을 계기로 삼아서 우리 나름의 일종 국가 돌봄 체제를 제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기현주 대표 01:06:36

네 노래 활동이나 내용으로 혹시 질문이나 첨언해 주실 분 계세요.

참석자 5 01:06:53

왜 현장에서도 혹시

오건호 정책위원장 01:06:56

저는 우리 저기 요 ngo 활동에도 관심이 많으신데 ngo 자체를 연구하시는 분이네요.

임지환 소장님이 지금 희망 제작서 우리 소장님 좀 의견을 듣고 싶네요.

어떠세요. 부탁드립니다.

참석자 8 01:07:09

네 사실 복지 의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식견이 없어서 말씀을 보태기는 조금 이제 쉽지 않은
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응원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의도적
으로는 우리 단체

참석자 8 01:07:37

관심 사안과 관련해서 좀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는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 좀 로컬 의제가 조금 아무래도 중심이 좀 되는 단체예요.

지역 혁신 지역 선택 대응 여기서부터 출발한 단체인데 이제 소멸 대상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
역들에 가면 기본적으로 이제

참석자 8 01:08:03

정말 초초고령 사회가 되어 있죠 제가 지난주에 홍성군에 이제 풀무학교가 있는 홍성군 지역에
다녀왔는데 풀무학교가 있는 홍동면도 70대 이상의 노인 인구가 70% 이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농촌 지역에서 여러 이제 혁신 활동 같은 거를 좀 벌려볼 수 있을까 이런
제 자원 쪽 관련해서 이제 좀 현장

참석자 8 01:08:28

방문을 쪽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혁신 지역에서 혁신이 벌어졌다고 평가하는 홍성
완주 이런 지역들 또 최근에 이제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된 의성 이런 지역도 사실
근본적으로 고령화가 이제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또 동시에

참석자 8 01:08:48

돌봄 체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미시적인 주제이지만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이슈 같은 게 도시 중심
에서 이제 아주 핫한 이슈라면 노인 돌봄의 문제는 또 이제 이런 도농 복합 지역이나 농촌
지역에서 시급한 문제고 우리가 어쨌든 인구 감소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석자 8 01:09:12

그것과 관련해서도 조금 생활 밀착형으로 좀 미시적인 주제로도 한번 고민을 우리한테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저희도 사실은 이제 계속 남한 보호 활동과의 연대 또 사실 원래 제가 기획을 하기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대표되는 국가의 이제

참석자 8 01:09:37

정책 연구 시스템과 민간 부분의 뭔가 협업 구조 협치 이런 것에 대해서 꿈을 꿨는데 이제 선거 결과가 이제 아무래도 그쪽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진형으로 이제 구조가 짜여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단체들 간의 연대 활동 여기에 좀 중점을 뒀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독립 연구자이신 운영중 선생님 저와 같이 한글의 신문 출신인데요.

참석자 8 01:10:05

말씀 들어보시면 복지에 대해서 또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조언 또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현주 대표 01:10:15

네 감사합니다. 좀 채팅방에 이수연 연구위원께서 임주현 소장님이 써주셨던 글도 공유를 좀 해주셨네요.

지역 소멸과 관련된 네 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김현아 위원님 혹시 더 첨언해 주실 내용 있으세요.

참석자 5 01:10:35

저요

기현주 대표 01:10:36

네 마이크 켜져 있어가지고

참석자 5 01:10:38

아니요. 따로 그냥 끊었던 거고요 굳이 꼭 첨언을 하자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전통적 복지 체계에서도 우리나라는 아직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해내지 못하는 다른 여러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사회적 경제가 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복지 전통적 복지 분야와 사회적 경제 분야에 이렇게 접점을 형성해내기가 생각보다 현장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참석자 5 01:11:10

작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최고 인구 소멸 지역인 의성에도 다녀왔었는데 의성이 기본적인 복지 시스템으로 전 17개 읍면 모두의 보건소 다 세팅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동되지 않는 거는 실제로 거기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참석자 5 01:11:32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것 어떻게 주민 활동으로 조직화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사실상 기존의 복지 기관이 해내지 못하는 지역의 주민 주체들이 해낼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지원이 일어나야 하는데 아직은 복지 분야가 사회적 경제 분야를 단지 기업 활동이라든가 일자리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조직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요즘에 글도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서

참석자 5 01:12:04

임주환 소장님이나 다른 또 연구자분들 많은 글들 좀 접하면서 고민하고 또 현장 나가보고 이러면서 여튼 돌봄 의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특히 지역사회나 지방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여러 측면에서 좀 내만북에서도 돌봄 의제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현주 대표 01:12:30

네 감사합니다.

오건호 정책위원장 01:12:32

저도 한 말씀 더 드리면 이제 신년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신년사에 저희 내만북 활동을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곧 개봉 박두입니다. 엄청 일을 많이 했구만요 근데 이제 고민이 우리가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2012년에 발족을 했는데 그때는 복지 국가가 엄청 바람이 불었을 때니까 그냥 복지후가 깃발을 올리면 이 사람들이 뭘 하려는구나 뭘 목표로 하는구나라는 게 굳이 설명이 필요 없었거든요.

죽 갔었고

오건호 정책위원장 01:13:04

근데 2022년 지금 복지 국가 깃발을 들었을 때 과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려는 곳이 이거고 무

엇을 하려는 것이 선명하게 전달이 될까 예를 들면 이번에 심상정 후보가 주 4일제 복지 국가 두 개를 걸었는데 그 뒤에 복지 국가라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 것일까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10년사 공부하면서 다음엔 뭘까 복지국가라는 게 노동 시간이 안정화돼 있고 이렇게 고령 인구가 많지 않은

오건호 정책위원장 01:13:33

2050년 60년대 사회 모델의 안정망인데 지금은 노동시장이 완전히 흐트러지고 아까 홍성 의성 말씀해 주셨지만 고령화 초고령화 엄청난 돌봄의 요구가 진행되고 국가와

오건호 정책위원장 01:13:50

시장 바깥의 어떤 사회적 팩터의 중요성이 더 제기되는 이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평안함과 안정을 갖고 싶을 때 그 요구를 복조가라는 담론으로 과연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 근데 우리 ngo는 사실은 우리 이름이 그걸 충족해야 되는데 그래서 참 고민이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저희 신년사

오건호 정책위원장 01:14:14

하고 아마 조그만 이렇게 평가 토론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좀 이런 이야기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기현주 대표 01:14:23

네 아마 저희 내가 만든 복지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고민들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특히 이번 대선을 이제 거치면서 정책 의제라는 게 완전히 사라진 대선을 우리가 치렀잖아요.

그러면서 6월의 지선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의 삶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은 것을 봤을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기현주 대표 01:14:54

이런 이제 작고 또 크고 한 다양한 공론장이 올해는 정말 많이 열려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안건 3번 4번 2022년 활동 계획과 예산 관련해서 보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기현주 대표 01:15:15

코로나 확진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혹시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네 마무리해 주실 말씀 있으세요.

홍순탁 운영위원장 01:15:29

저희 기타 안건 없으신 거죠. 네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면 저희 총회 자료 만들다 보면 의도되지 않은 오타가 있고 의도된 오타가 있거든요.
김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안 기간이 틀린 것은 의도되지 않은 오타고요 여기 찾아보시면 의도된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홍순탁 운영위원장 01:15:53

저희가 정권 퇴진 운동에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숨겨놨어요.
거기 활동 계획에 숨겨져 있는 거죠.
줬다 뺀 기초연금 보시면 윤석명 정부라고 써놨습니다.
윤석명 정부라고 써놔서 윤석열 정부를 없애겠다는 의도가 들어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활동 계획이 되겠네요.

홍순탁 운영위원장 01:16:21

뭐 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저희가 올해 의재 발굴이 되게 고민이 많은 해가 될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려면 제가 좀 많이 만나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으니 저희 운영위원들 또 회원님들 저희 공간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2022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현주 대표 01:16:49

네 그러면 이상으로 2022년 내만복 총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들 괜찮으시죠 이후에는 건강하게 좀 얼굴 보면서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 번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강지현 01:17:13

종료하겠습니다.

홍순탁 운영위원장 01:17:14

수고하셨습니다.

오건호 정책위원장 01:17:16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석자 5 01:17:17

고생하셨습니다.